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틈새시장 공략 셀링컴파운드 국산 기술 개발 성공

국내에서 유통되는 음료포장용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캔, 즉 제관이다.

흔히 제관이라고 하면 음료캔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제관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제관사들의 경우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음료캔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기는 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떠올려 보면 제관의 쓰임새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통조림캔, 페인트용 캔 등이 그것들이다.

부평에 위치한 삼화실업(주)은 국내 큰 제관사의 대부분이 음료캔을 중심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반면, 통조림캔, 페인트용 캔을 비롯해 셀링컴파운드, 인쇄용 고무롤러 등 다

품종 소량생산을 하며 대기업이 외면하는 틈새 시장을 든든히 지켜가며 국내 제관유통업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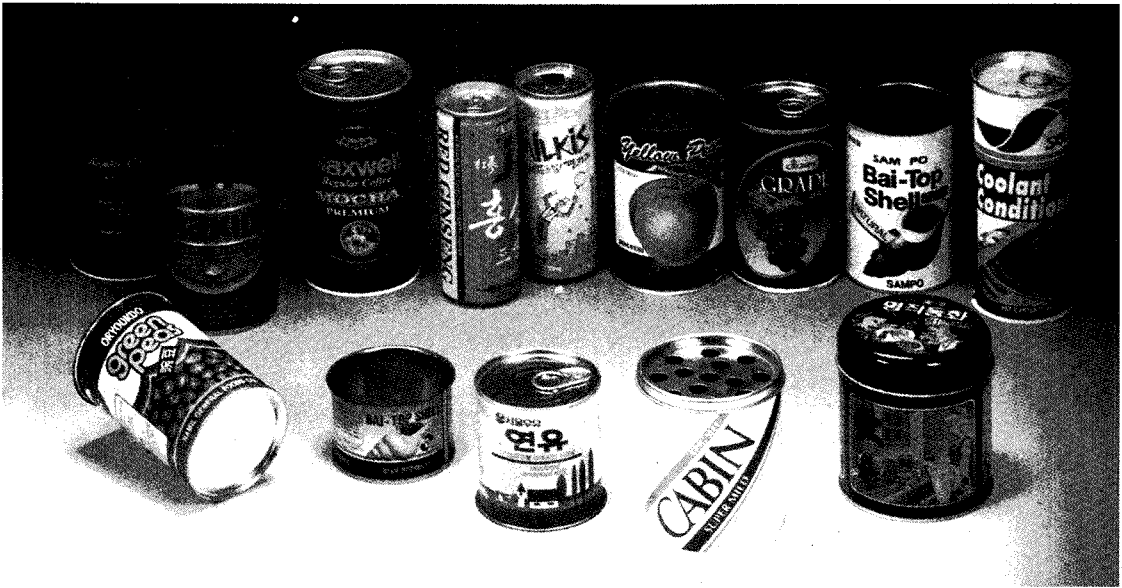
식품·음료캔이 국내에 도입될 때부터 제관제조업에 뛰어들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고광민 부사장은 "1973년 제관제조 및 금속인쇄업으로 시작한 저희 삼화실업은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진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삼화실업(주)에 대한 첫 인상을 제시했다.

고 부사장이 보여준 삼화실업(주)의 첫 번째 특징은 통조림캔, 페인트용캔 등 음료캔 중심의 제관생산체제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시장이 큰 음료캔만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삼화실업(주)



▶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화실업(주) 인쇄공장 전경 (왼 안은 고광민 부사장)



▲ 제관의 틈새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화실업(주)의 생산품목

의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통조림용 캔, 페인트 용 캔 등 사용량이 적은 품종에 대한 틈새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삼화실업(주)의 또 한가지 특징이자 삼화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쉐어링콤파운드를 국산화해 생산·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쉐어링콤파운드란 페인트용 캔 등의 밀봉시에 쓰이는 고무바킹을 말하는데 삼화실업(주)은 수입에 의존하던 이 제품의 기술개발에 성공해 전량 국산화,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전 제관사에 대한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쉐어링콤파운드의 경우 미국의 다렉스 그레이스사가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삼화실업(주)에서 창업과 동시에 일본의 후쿠오카 패키징에서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기술 개발에 착수, 국산화에 성공, 현재 국내 시장은 다렉스 그레이스사의 시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삼화실업(주)은 제관생산을 주로 하면서

자체 인쇄공장을 가지고 이 인쇄공장을 중심으로 고급인쇄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정진 중인데 충남 아산에 위치한 인쇄공장에서는 최근 고급 인쇄에 적합한 고무롤러를 개발했다.

“아산에 인쇄공장을 세우면서 일본의 테크노롤러와 기술제휴해 국내 기술로 고무롤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Joe Mark사와 기술을 제휴해 특수 롤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는 고 부사장은 특수 롤러의 특징에 대해 소프트하고 순간복원력이 뛰어난 고가제품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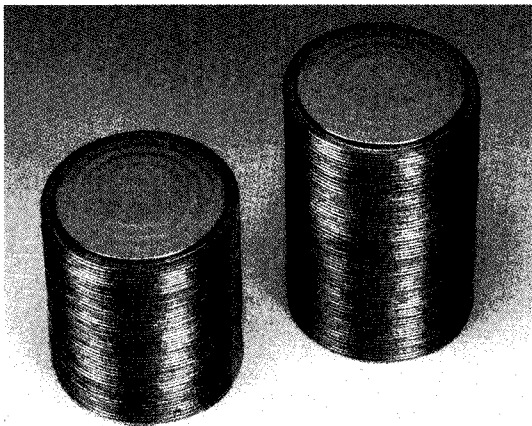
또한 이 제품은 표면 장력이 높아 특수용체를 흡수하지 않고 지분을 사전에 흡착하므로써 최고급 인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크기도 다양해 모든 인쇄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삼화실업(주)은 핸드 메이커 제관을 생산하므로써 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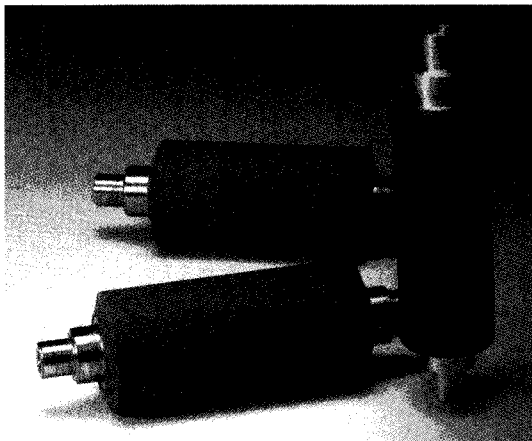
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하다.

주로 중국과 필리핀, 미얀마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는 삼화실업(주)은 제관의 몸체를 만들어 현지에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 한번에 대량의 수출이 가능해 수출시 물류비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부평공장과 아산공장을 통틀어 70여명의 인원이 삼화실업(주)을 구성하고 있는데 부평공장에서는 제관의 생산을 주로 하고 최근에 가동이



▲ 삼화실업이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쉘링콤포운드



▲ 최고급 인쇄용 특수 고무 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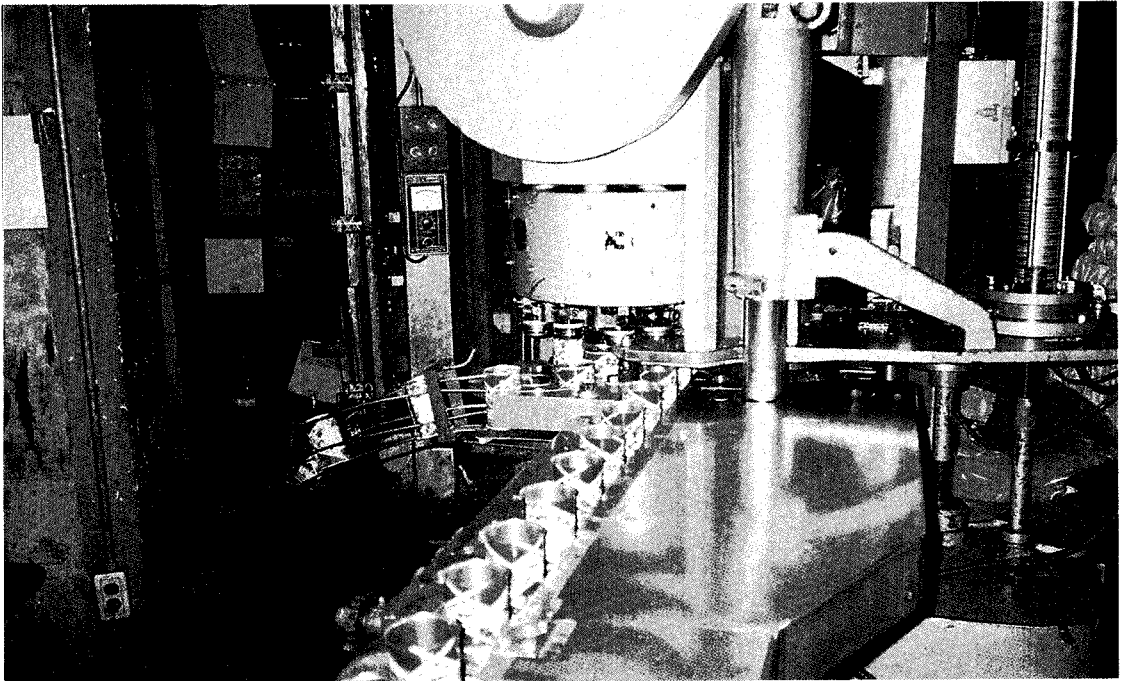
시작된 아산공장의 경우 인쇄 및 쉘링콤포운드, 롤러 등 기술위주의 생산을 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저희 삼화실업은 70여명 중 대부분이 장기근속자입니다. 이는 가족적이고 사원위주의 직원관리를 통한 결과이며 이는 또한 간부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현장에서 자기 분야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므로써 기술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 부사장의 말처럼 삼화실업(주)의 모든 근속자들은 제관, 인쇄, 쉘링콤포운드, 고무롤러 등 삼화실업(주)이 생산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완벽한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삼화실업(주)가 가진 여러 가지 기술 중 최근 가장 인정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각관제조 기술이다. 육가공품의 통조림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각관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납땜을 해 왔는데 삼화실업(주)에서 주석으로 석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인체에 무해하고 가공이 쉬운 장점을 이끌어 냈다.

석땜을 할 경우 녹이 슬지 않아 유통 및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고, 납땜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체유해성분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어 많은 통조림생산 유저들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최근 제관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보도를 접하여 옛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고 부사장은 “당시 한 가지분이 저희 제관분야에 갓 뛰어들어 취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본 이후 그분의 모습을 제관과 관련된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이 분야의 모든 기술



▲ 삼화실업(주)의 전자동 제관생산라인

자들에게 쉽없는 질문을 던지곤 했었습니다. 그분은 기자로 재직하는 동안 제관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지요"라며 모두는 아니지만 최근 언론에 재직하는 다수들이 맡은 분야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특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언론 플레이로 인해 사회의 정당한 부분에 많은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탄식했다.

이번 환경호르몬의 경우도 그런 예가 아니겠냐는 고 부사장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특히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확실한 정보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저희 삼화실업을 표현하자면 기술을 모으고 국산화해 개발, 관리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 부사장의 말처럼 삼화실업(주)은 수의 위주의 산업체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자칫 사장되어버릴 수도 있는 작은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력을 갖추어 감으로써 국내 시장을 튼튼히 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든직한 업체이다.

장마의 한 가운데 선 날 찾아간 삼화실업(주)에 투영되었던 우리 중소기업의 난황이 국가적 정책 지원에 의해 극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1970~80년대 국가경제 성장의 시기에 기술 및 수출 신장에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날, 그 날이 길고 지루한 IMF 장마의 끝임을 확신한다. ☞

윤지은 기자